▶▶ 매일 INDEX

3면
전국 시도의장단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해야"

전주매일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음 4월 5일) 제25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량 국내 첫 고군산군도 달려

전북도, 내달말부터 시범운행 거쳐 8월 정상운행
전기자동차 기반, 최대속도 25km 첨단장비 장착

오는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운전자가 없는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이 고군산군도 선유도에서 운행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스프링클라우드사로부터 자율주행버스 4대를 도입해 고군산군도 선유도에서 4월말 시운전, 5월말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8월에는 정상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제작된 자율주행버스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첨단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승차인원은 15인승으로 국토부 운행허가 승인을 받았다. 최대속도는 25km로 알려졌다.

5월말부터 진행되는 시범운행은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과 유람선 선착장까지 약 1.5km 구간이며, 정상운행되는 8월부터는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과 망주봉을 오가는 총연장 2.5km 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량 운임은 당분간 무료이고, 향후 유료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으며, 차량 운행에 맞춰 선유도 일원에 자율주행차 체험존과 전용승강장 등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과 군산지역에 '새만금 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고군산군도에서 국내 최초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이 달리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지난 24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사회적취약계층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기증식에 송하진 도지사, (주)신광제약 이사,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본부장, 홍영근 전북도 소방본부장 등이 기증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위한 아름다운 나눔

신광제약 풍산지점, 전북도에 마스크 1만개 기증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4일 ㈜신광제약 풍산지점(대표 기순종)으로부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마스크 1만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신광제약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도내 사회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굿네이버스 전북본부를 통해 도내 취약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크게 감소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증식에 참석한 신광제약 유부심 이사는 "마스크가 코로나19 종식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마스크 공장 화재예방을 위해 컨설팅 및 순찰활동에 고생하는 도 소방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를 기증해 주신 ㈜신광제약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해외입국자 이송 지원, 마스크 제조사 의용소방대 인력지원, 다중시설 방역활동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 16번째 환자 2차 양성… 입원치료 연장

대구에서 이송된 전북대병원 입원환자는 퇴원

코로나19 증상 호전에 따라 퇴원 예정이던 도내 16번째 확진환자가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입원치료를 계속하게 됐다.

전북도는 도내 코로나19 16번째 확진환자인 A씨(42, 여)가 증상이 호전되고 지난 22일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나와 퇴원을 고려했지만 23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됨에 따라 입원치료를 계속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간호사인 A씨는 대구 동산병원에 파견근무 뒤 증상이 있어 확진됐으며, 지난 4일부터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에서 이송돼 진안의료원에서 치료받다가 아들과 함께 전북대병원으로 전원된 B씨(48, 여)는 22일과 23일 실시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확인되어 24일 퇴원할 예정이다. 같이 이송된 B씨의 아들(19)은 지난 8일 퇴원했다.

한편, 도내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19명으로, 도내 확진자 7명, 도외 확진자 8명, 검역단계 확진자 4명이다.

이들은 전북대병원에 1명, 군산의료원에 14명, 남원의료원에 4명이 입원 중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교육청, 방과후학교 강사에 선금 지급

신청자에 최대 100만원까지

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도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선금 지급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신청자에게는 계약금액의 20% 또는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계속 늦춰지면서 수 개월째 방과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나 교육지원청과 직접 계약한 강사는 7,000여명이며, 이들은 개학 연기로 강사료를 받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다소 숨통은 트였지만, 생계유지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도교육청도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긴급돌봄 프로그램 강사, 오전·오후 긴급돌봄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참여 가능 인원이 한정적이어서 많은 강사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금 지급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생계 대책 중 하나로, 도교육청 내부 검토 끝에 신청자들에게는 계약금액의 20%, 10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생계가 어려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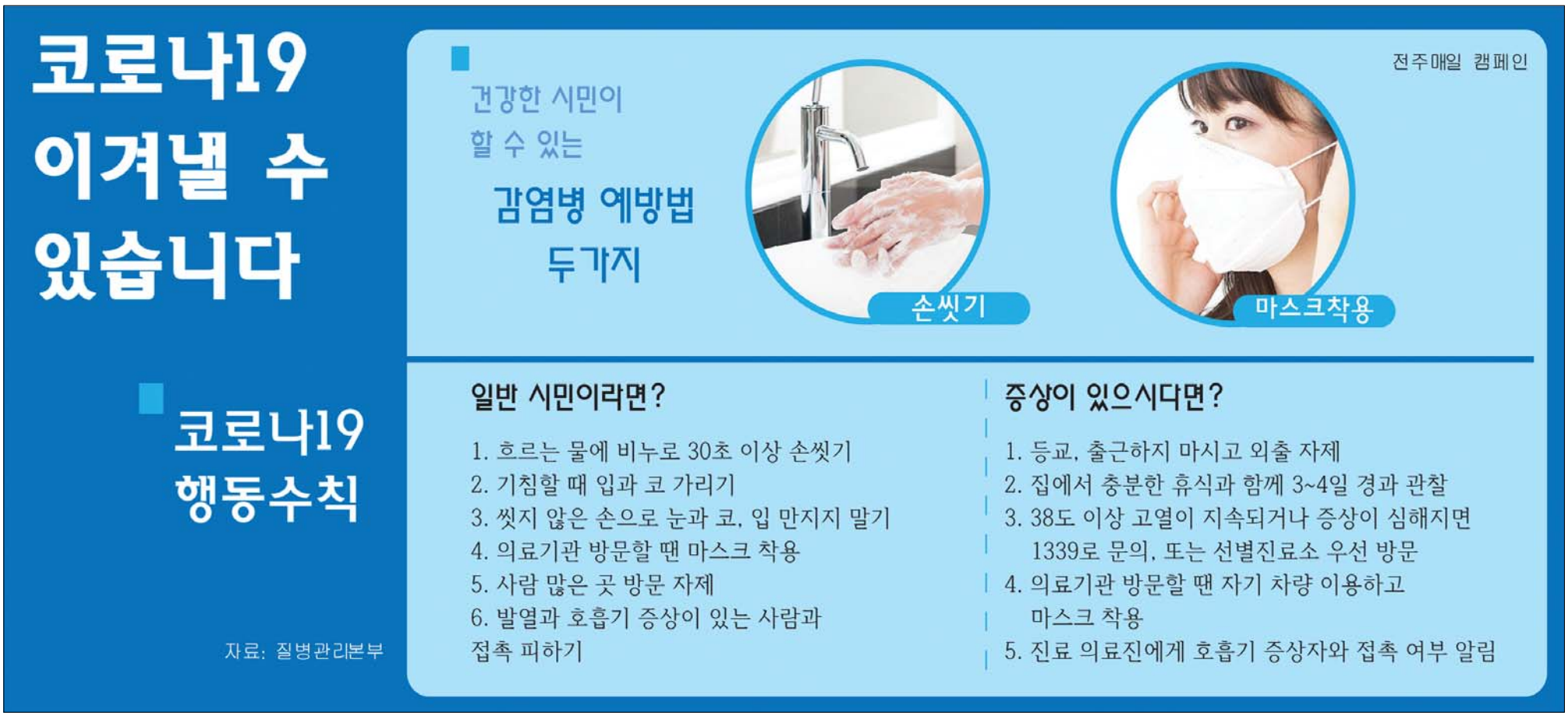
전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6월 20일'

응시자 3752명 · 경쟁률 12:1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2020년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6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력,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도 필기시험 일정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및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응시자는 약 5만명 정도이며, 그 중 전라북도 응시자는 3,752명으로 평균경쟁률은 12.22 : 1이다.

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행되는 첫 시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응시를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험생들도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개인별 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건강관리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